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1]

김완일 목사 / 1994

인간이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풍부한 어휘를 언제 어디서나 말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꼽을 수 있다. 언어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언어의 소중함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즉 다른 종교와는 달리 성기는 신(神)의 실체 보다는 그 말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의 메시지와 전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관심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과 문화 속에서 생성된 언어를 누구보다 깊이 연구하고 그 언어를 통하여 신언(神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위치에 서게 한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어사용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내용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다. 심지어 표현과 전달을 하나의 세속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마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요령이나 잔꾀로 여기기까지 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현대의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이 행동과학과 심리학, 언어학 등의 통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로써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늘날 정보시대의 혁명을 낳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청취자 심리학 등이 사회, 문화, 과학의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성경공부에도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말)는 메시지의 이해와 전달에 일차적인 사건이며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말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감성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느낌과 이성적인 생각을 이끌어 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의 창조적인 힘은 우리가 상대방의 내면세계와 현실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결정지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현실을 인식하게 마련이다.

성경공부에 있어서 말은 가장 중요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말을 얼마나 품위있고 적절하게 잘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공부에 있어서 이해와 설득과 적용의 승패를 결정지어 준다.

복음의 진리는 가르치는 사람의 언어적 능력과 감화력 있는 표현에 따라 은혜와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무관심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정확함과 고상함과 아름다움이 요구된다.

언어란 전통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며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 교육학계에서는 언어를 단순히 의사전달의 도구나 교육적 설명의 수단으로만 취급해 온 전통을 비판하면서 언어의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계속)

* 출처 - 온누리신문